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제36권 19호(다해) 2016년 4월3일

[묵사]



<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

人間 - 이성적인 동물.

만져보고 눈으로 보아서 이해가 되어야만 믿는 존재.

3년간 굳게 믿고 따랐던 분,
영원한 구원과 자비하신 하느님을 전해주셨던 분,
돌아가신 것도 믿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라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부활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신비’는 ‘상식’이 된다.

이성이 신앙 안에서 붕괴되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으로 이어진 것이다.
어리석음이 깨어지면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신앙으로 변화된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립회 (장래사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에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트레아(넷째주) 성소후원회(첫 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교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한국 교회의 역사

4. 박해의 원인과 순교의 의미

4-2. 순교의 개념과 의미

이와 같은 순교는 초자연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순교는 이성 차원의 합리적 해석도 가능하다. 그들은 평시에도 복음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생활을 해 왔다. 그들은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였다. 이 신앙고백은 하느님을 통한 자기 존재의 확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을 생활 안에서 실천해 왔다. 그들은 성사 생활에 철저하고자 했고, 인간을 존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살이와 사랑살이를 일치시켜 왔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죽음의 마당에서도 즐기차게 복음을 증언하였다.

한편 그들의 순교에는 다른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 그들의 신앙 실천과 순교는 자의식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시의 사상과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의 순교는 하느님을 통한 자기 존재의 확인이었다. 조선 왕조가 자행한 전근대적 사상 통제와 신분제적 사회 질서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들의 죽음은 인간의 양심과 인격에 대한 위대한 깨달음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신분제 질서 안에 매몰되어 있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발견이었다. 순교자의 죽음은 우리 역사 발전 과정에서 출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갈망의 결과이다. 그들은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얻기 위한 전선에서 산화한 전사자이기도 한데, 그들의 순교는 신앙 행위였을 뿐 아니라 사회·사행위로, 우리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게 되었다. 이 역사 행위를 한 박해 시대의 신자들은 오늘날의 우리처럼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죽음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망과 희망을 번갈아 가지며 고뇌하기도 하였지만 참다운 생명의 길, 희망의 길을 견고자 했던 사람들이다. 평범한 이 사람들이 실천한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것이다. 순교자들을 비신화화(非神話化)하고 역사화(歷史化)함으로써 순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 계속 >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62	162	164
봉헌	268	268	259
성체	304	304	282
파견	169	169	162

토요 저녁 미사	(연) 서성용 베드로, 신임순 안나, 성세근 요셉, 김완태 다미아노, 유금중 프란치스코, 김복성
	(생) 박수진보나 & 유보나 보나
주일 낮 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 이운조 클라라, 이강염 바오로,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서성용 베드로, 이용식 베드로 & 김준경 요한, 고준희 제임스, 현시영 요셉, 이이순 빈센트, 연옥 영혼, 민기남 모니카, 김병기, 정재우 요왕, 김복순 데레사, 잔위커 & 잔호프시티드 & 스티브몰리, 정인식 베드로, 박동옥 요셉
	(생) 황윤재 베드로가정, 김경자 소피아, 김정선 안나 가정, 권희창 요한 & 권혜원 소피아, 박정미 클라라, 박예지, 이정훈 안셀모 & 이윤진 대견안드레아 & 이윤희 올리비아 & 이유한 돈보스코 & 이희운 도미니카, 이규상 클레멘스 & 이민상 요한, 김지훈 대견 안드레아, 김임식 마누엘라 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5,12-16

화답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제 2독서 묵시록(Revelation) 1,9-11, 12-13, 17-1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 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음 요한(John) 20,19-31

영성제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20,21)

화창한 봄날의 기운이 무르익으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몸도 마음도 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고민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목적지가 정해져야 어떻게 갈지, 무엇을 할지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그릇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갈수록 목적지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지는 자비하신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일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일깨워주는 신앙 여정의 올바른 등대, 북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일러주는 삶의 나침반은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요한 20,31)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토마스가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요한 20,28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신앙인이란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가는 여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일치를 이루려면 어찌해야 할까

요? 어떤 길을 선택하여 달려가야 할까요?

‘하느님 자비의 얼굴’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엿봅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게든 드리워지기를 바랐다.”(사도 5,15)

이제 병자들을 포함하여 하느님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모여 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에게서 예수님 자비의 얼굴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느님 자비의 얼굴, 예수님 자비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니 보여주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되는 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 기도,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라고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자비의 얼굴이 떠올려지는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평화가 자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의 전령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테레사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교복 레오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김금자 테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남성철 베네딕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유민상 안토니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3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주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대희년인 지난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의 시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나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 교리반 예비자 모집

2016년 예비자 봉헌을 위해 모든 신자 분께 기도와 인도 부탁드립니다.

- 모집 및 전교 기간 : 4월3일 ~ 5월 15일
- 환영식 : 2016. 5월 2일 11시 미사 후 강당
- 교리반 : 5월26일~12월8일, 매주 목요일 8:10 ~ 9:10PM
- 세례식 : 2016. 12.11 예정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성혈봉사자 모집

본당 교우이시며 50세 이상 되시는 분 중 성혈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신부님의 면접과 교육 후 봉사자로 임명될 것입니다.

◆2016년 레지오 일일피정

- 일 시: 4월16일 (토) 오후 1시 ~ 5시
- 장소: 성당
- 대상: 레지오 단원및 협조단원 전원
- 연락: 남성철 베네딕도 ☎ (310)408-1443

◆주일학교 여름캠프 등록안내

- 날짜: 7월 8일 금요일 ~ 7월 10일 일요일
- 장소: Oak Glen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대상: 3학년 ~ 12학년 주일학교 등록된 학생들
- 등록기간: 4월 10일 일요일 - 5월 22일 일요일
- 인원: 35명 선착순
- 참가비: \$60 (등록기간 후 \$85)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1. 단어경시대회

일시 : 3월 27일 - 각 반별 진행

시상식 : 4월 17일 학생미사 중

2.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I, II)

일시 : 4월 16일 토요일

3. 제2차 통일골든벨 퀴즈대회

일시 : 4월 23일 (토) 오후 2시

자세한 문의 사항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또는 103skccks@gmail.com

◆오늘 주일은 (4월3일) 봄 방학으로 주일학교, 한국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 3일 * 소공동체 : 김밥 (\$ 4), 컵라면 (\$2)
* 주일학교 : 수업 없음
- 4월 10일 * PV2반 : 카레덮밥 (\$ 3)
* 주일학교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구자운 국세찬 김병조 김순옥 김영덕 김 은 김인성 김정선 김 준 박완철 박운모 박종열 반정이 성낙호 윤화경 이경태 이병우 이재철 이태옥 이형삼 정훈모 최이원 최재은 송다이를 익명 합계:\$3,615	성전헌금	강미순 구자운 국세찬 김병조 김영덕 김 준 박완철 성낙호 이병우 이형삼 정훈모 최이원 최재은 송다이를 합계 : \$1,225
주일미사헌금 :\$3,560	사순애금: \$7,147.75	예루살렘 성지보존: \$ 1,069	부활전야 : \$1,334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남가주 소식

◆2016 FIAT 장학금 프로그램

- 신청자격 :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12th~ 대학, 대학원생), 북미주거주 코리안 어메리칸 신학생
- GPA 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3/15(온라인접수시작~5/ 31/2016)
- 신청문의-scholarship@fiat.org (714)702-9830

◆2016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 자격: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9th~11th)
- GPA 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3/15(온라인접수시작~5/ 31/2016)
- 신청문의-service@fiat.org (714)702-9830

◆ 제 3회 학생 성화 미술대회

- 대상: 유치부, 초등부(저학년,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학생
- 주제: “예수님 이야기” ● 작품크기: 24x24 인치이내
- 참가비: \$10(Pay to : Mee Lee)
- 접수기간 : 4월 15일 ~5월14일
- 문의: 가톨릭 미술가회☎(909)576-5773 (562)292-8999

◆ 주사위 가족모집안내

- 주사위란 "주님 사랑을 위하여" 의 약자로 주님의 사랑을 음악으로 전하기 위하여 모인 남가주의 천주교 생활 음악 단체입니다. 정기공연과 음악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함께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남여보컬 각2명(오디션있음, 지정곡, 희망곡)

연출담당: 1~2명

- 자격 : 30~40 세 가량의 가톨릭신자

- 신청: jusawil122@gmail.com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김양금 안나 4/13(수) 오후4시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4/09(토) 엘림은천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4/15(금)오후7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김교복 레오 850-6253 4/17(일) 오후5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최상만 사비오 4/02(토)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태은 비비안나 4/22(금)오전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625-3312 4/15(금)오후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여순 도미니카 4/12(화)오전11시
	3	김유미 사비나 850-2822	강 켄마214-2290 4/09 (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정병옥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박정희 마리아 4/11(월) 오후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6 4/09(토) 오후7시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다 384-3289	전 테레사 909-709-3181 4/08(금)오후7시 성당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동진 스테파노 793-6157 4/08(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장원철 안드레아 562-472-4727 4/09(토) 오전11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귀란 아베스 617-3568 4/12(화)오전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반장회의, 사목 회의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 단체모임	1시
--------	----

[길을 찾는 그대에게]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제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 뜻이라면 제발 그 생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멈추어지지가 않고 이제는 기도 때만 아니라 하루 종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제 뜻과 주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 저도 기도 중에 교회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일 수 있지만 기도를 방해하는 분심일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주님과 대화에 더 몰입하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 후에 이끌어 주심이 있을 것을 믿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과 만남입니다. 주님께서 이 만남을 소중해 하십니다. 기도 중에 어떤 사업의 구상이 우선될 때 '좋은 생각'일지라도 주님과 대화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농간일 수 있습니다. 자매님께 떠오르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하나님의 뜻이라기엔 방법이 세속적이 아닐지, 유익한 결과를 얻겠지만 하나님 뜻에는 약간 모자란 듯싶은 일이 아닐까 짚어줍니다. 올바른 기도는 자신의 생각이나 관념을 먼저 부수어 줍니다. 하여 하나님의 뜻은 서로 똑같이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서로 기쁘고 서로 감사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떠오른 '좋은 생각'이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기쁨을 줄 수 있을지, 꼼꼼 쟁해 보기 바랍니다.

◆ 장재봉 신부/ 선교사목국장

[교리상식]

신자 가정에 비치해야 할 성물은 무엇인가요?

☞ 사제의 축복을 받아 성별된 것이나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을 성물이라 하며, 일상생활의 세속적 용도와는 다르게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데 사용합니다. 신자가정에 비치해야 할 성물은 이렇습니다. 성경, 가톨릭 기도서, 가톨릭 성가집, 십자고상, 성모상, 묵주, 성수, 성초 등이 있으며 예비 신자들도 성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PD 하나님, DJ 예수님」 / 바오로팔

사람냄새가 그리운날

오래 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버킷 리스트'의 영향인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란 제목이 눈에 많이 띈다.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곳,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죽기 전에 꼭 한 번 만나고 싶은 사람 등등 사람에 따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도 다양할 것이다.

그런데 내게는 그런 욕망이랄까 소망이 없다. 그렇다고 살아오는 동안 많은 거 누리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가고 싶은 명소 다 다니면서 산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누리지 못한 것, 하고 싶지

만 못한 일들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아마도 내가 무채색인 사람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있다. 어쩌면 그것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겠다.

한국을 떠나면서 소장했던 수백 권의 책을 다 버리면서도 차마 버리기 아까워 미국까지 끌고 온 책들, 여기 와서 기회 있을 때마다 사들인 책들을 다시 읽는 일이 그것이다. 추억의 맛을 그리워하며 찾아먹는 음식처럼 다시 씹고 맛보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그리고 나서 다른 이들이 읽도록 내 손에서 떠나 보내기. 그런 마음으로 빼어 든 책이 서재영 산문집 '진지방 미스 신이 심은하보다 이쁘다'이다. 미국에 온 뒤 얼마 되지 않아 제목에 끌려 샀던 기억이 난다.

서재영은 충북 음성 가산이 마을이라는 농촌에서 똥장을 달아 파는 소설가이다. 그는 사는 고장의 자잘한 일상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솔직하고 유쾌한 필체로 독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쿼퀴한 곰팡내와 유행가, '가오 마담'이 등장하는 구식 다방이라든가 서로 품앗이나 자의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거기에 글쟁이로서의 사건을 덧붙인다면 당의정이 입혀지지 않은 순박한 글이 더 구수하여 읽는 이의 마음을 흔든다는 사실이다.

문득 내 젊은 날의 한 때를 기억하게 만든 것도 작가의 소박한 문체와 인정담(人情談)이었을 것이다.

내가 두 딸을 낳아 기르던 동네는 서민동네였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별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우리 동네는 생활수준이 그만그만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다 한 울타리 안에 두 세 가구가 함께 살았다. 대문은 있었지만 철저히 문단속을 하지도 않았고 아이들이 한참 안 보여도 어디서 놀고 있겠거니 여기며 걱정하지 않았다. 등하교 길의 치한이나 유괴범을 두려워하며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었다.

오다가다 또래 친구 집 앞을 지날 때면 대문 안을 기웃해 보고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 노닥거리다가 끼니가 되면 밥도 얻어먹었다. 어쩌다 시루떡이라도 찌는 날이면 아이들을 시켜 집집마다 떡 접시를 돌렸다. 그렇다고 일산화탄소에 코를 찌뚱며 연탄불을 갈아야 하고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 손빨래를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좁은 골목으로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들어선 지붕들, 낮은 담, 오가던 인정이 문득 떠오르는 건 사람냄새가 그리워서일 것이다. 사람냄새란 무어겠는가.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살면서 부대끼며 정을 나누는 가운데 우러나는 토속 장맛같은 향기가 아닐까.

미국이든 어디든 사람 사는 양상이야 거기서 거기지만 어쩐지 내가 몸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은 마치 각자 작은 섬처럼 떠 있는 느낌이다. 어쩌다 차 한 잔을 나누고 싶어도 멀리 떠 있는 또 다른 섬에게 수신호를 보내야 하는 공간과 거리의 간극이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 마리아 사랑넷

신앙의 부부, 아퀼라와 프리스킬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아퀼라와 프리스킬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남편은 독수리라는 뜻의 이름인 아퀼라로 유대인이었고 부인 프리스킬라는 로마 귀족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아퀼라는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코린토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열심한 신앙과 인품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들 부부를 찾아갔는데 다행히 부부와 생업이 같아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생업은 무엇이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행전 18,1-3

당시 코린토는 지중해 연안의 유명한 항구 도시이며 교류가 활발한 국제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아퀼라 부부는 민족이나 인종의 차별과 국적에 상관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오로를 배척하자 바오로는 옷의 먼지를 털며 무엇이냐고 말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행전 18,4-6

사도 바오로는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습니다. 그 집은 마침 바로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크리스포스는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코린토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오로의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니다. 바오로는 그곳에서 얼마나 머무르며 복음을 선포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행전 18,7-11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기술은 아주 귀한 기술이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공동체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신이 선교비를 벌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선교에 실패해 실망한 바오로는 아퀼라와 프리스킬라 부부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오로를 미워하여 그를 잡으려 무척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를 집에서 돌본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퀼라와 프리스킬라 부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심전력으로 바오로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제를 보호하는 것은 자신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팔호 속을 채워보세요!

거기에서 그는 폰토스 출신의 ()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다. 아퀼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아내 ()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사도 18,2)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며 모독하는 말을 퍼붓자 바오로는 옷의 ()를 털고 나서, “여러분의 ()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들에게로 갑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도 18,6)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기도묵상

주님! 제게 줄은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주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작고 비천하기에 주님의 끝없는 자비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 성녀 파우스티나 -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1-855-388-4141 Los Angeles, CA 90006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J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사문*마리암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정근방범이 결과를 달리 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Bl.#1110 LA(에쿼터블)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운동보일러 설치
김천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DB06580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MAIN OFFICE (FD1648)	South Bay Office (FD2253)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서박사 수학 과외지도

K-12, SAT ACT 책임지도
서울대, 아이오와 대학원, 교직경력
☎310-627-7204 서해정 마르타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블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State Farm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